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27일) 2019년 5월 1일 수요일



"MBC는 사과하라"… 봉축 환희가 분노로

MBC의 조계사 신축 템플스테이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계사는 4월 23일 MBC 규탄법회를 열고 MBC의 사과와 최승호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조계사 신도대중은 소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보도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MBC를 질타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MBC 편파 보도에 '봉축 佛心' 멍든다

MBC 뉴스 파문… 불교계 "봉축마다 왜 이러냐" 공분

소명 미반영에 왜곡 편파 비판
MBC기자 "납득안돼 소명안해"
언론계 "소명 임의누락은 편파"

조계사, 검찰고발 및 언중위 제소
조계종 대변인도 불만 강력 제기
"악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진행된 MBC뉴스데스크의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횡령의혹 보도에 대한 불교계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5일 MBC 최승호 사장과 보도국장, MBC뉴스데스크의 기자 2명과 A건설회사 각자대표 임ㅇㅇ씨 등을 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4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신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MBC규탄집회를 열고 △MBC 최승호 사장의 사퇴 △MBC보도국장의 해임 △MBC뉴스데스크 보도기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조계사 충분한 소명, 반영 無

조계사와 불자들의 이같은 행보는 MBC가 4월 22일 보도한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의혹 보도가 조계사 측의 소명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4월 8일 조계사 안심당 앞에서 촬영 중인 MBC취재진을 발견하고 취재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MBC기자의 여행사 직원 등으로 가장한 취재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공식 취재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구, 공문접수 후 4월 11일 MBC기자의 조계사 내방에 공문 전달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명했다.

당시 소명은 △체험관 일부 용도 변경은 유관기관 협의 거쳐 구청 허가를 얻어 이뤄진 점 △시행사와 계약 이후 시공사와의 계약은 시행사 A건설의 면허 획득을 위한 행위로 조계사는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시행사 대표가 벌인 사건인 점 △내진설계 변경은 테라블릭 공법서 전벽돌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내진 보강이 더 이뤄진 점이었다.

하지만 MBC뉴스데스크는 22일 보도에서 '정부 돈을 받아놓고 정작 엉뚱한 건물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부터 조계사는 이 건물을 템플스테이 체험관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에 있었던 지진 대비 보강공사도 빼먹었다'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자인 신 모 씨는 본지 통화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으로 사용할 공간이 당초 목적보다 줄어 들었고, 어떤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는지 납득이 될 만큼 밝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종로구청도 아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용도가 변경되었음이라고만 밝혔다"고 말했다. 또 여행사 직원 등으로 위장취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MBC는 조계사에 카메라 진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악의적 편집, 보도 시점 의혹 제기

하지만 이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저널리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취재 대상의 소명에 대한 임의 판단에 기반한 보도 누락은 반론권 보장과 공정성이란 저널리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편파 왜곡 방송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편집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제목에 '국고보조금 횡령의 혹'이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조계사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MBC가 제시한 계약서는 조계사가 체결한 바 없는 위조계약서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MBC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조계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명 스님은 "공사업자 간 이해다툼이란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했다. MBC 최승호 사장은 지난해에도 이맘때 즈음 PD수첩을 통해 불교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저의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사 신도들도 울분을 토했다. 김문주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불교집안의 가장 큰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준비로 환희심이 가득해질 시기에 선정적 보도로 MBC가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불교 최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보도의 사실 전달도 부족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악의를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MBC의 보도가 과하다는 건 불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뉴스데스크는 4월 23일 조계종이 진행하는 10 · 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법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까지 특혜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교 청소년교육, 사회적 지혜 함양을"

조계종 포교원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서

교육정책 변화 따른 방안 모색
공공선 알리는 데 방점 둬야

조계종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토대로 청소년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 '국가교육정책의 변화와 청소년 활동 모색'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고 불교계 청소년 종교교육의 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장학관의 '교육정책방향과 종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의 '국가교육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 포교전략과 방법'이 발표됐으며, 권진영 전국교법사단장과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무총장,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조진형 장학관은 불교계 청소년 종교교육 활동에 있어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공공선을 알리는 부분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 장학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종교계 인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불교계에서 운영한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했다. 가장 주목할 것으로 불교색채를 띄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본연 가치에 충실하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종교배경의 학생들이 특정종교를 의식하지 않으며 인성교육에 집중해 결과에 만족했다는 것"이라며 "종교 가르침을 넘어 현대사회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과정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 원장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및 어린이청소년포교 현장의 지도자 양성 및 지원책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인 스님은 "교육 전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활동에 우리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신임 이사 덕문 스님 선출

4월 25일 이사회서… 감사엔 호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선출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자광)는 4월 2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19회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덕문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후임으로 자광 스님은 7월 20일부로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종회의 검증을 거쳐 자광 스님 후임 이사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사회는 복수추천된 후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덕문 스님의 이사 선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덕문 스님의 임기는 7월 21일부터 4년 간이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3월 사직한 동국대 일반 감사 덕문 스님의 후임에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출됐다. 이사회는 조계종의 추천을 받은 호산 스님과 성화 스님(초심호계위원)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호산 스님을 감사로 선임했다. 호산 스님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임기로 2020년 1월 4일까지다.


덕문 스님


호산 스님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산하기관 결산과 통합구매 및 물류대행업체 법인 설립, 금산중 씨름장 증축, 동국대부속유치원 증축,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사업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이사 성타 · 법산 · 돈관 · 일관 · 성효 스님 등 재적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사 고 제1244호, 제1245호는 제작 일정 상 신문 발송이 지연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결의문 -

오늘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우리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동조하여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과 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다 음 -

1.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봉사하는 일부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실과 확인되지도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근거로 전 총무원장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심지어 검찰 고발의 당사자가 종단과 사찰의 종무원이 아니라 조계종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외부단체인 민주노총이 우리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3. 우리 종단의 운영질서이자 근간인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
4.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재편 등을 비롯한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2563(2019)년 4월 23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